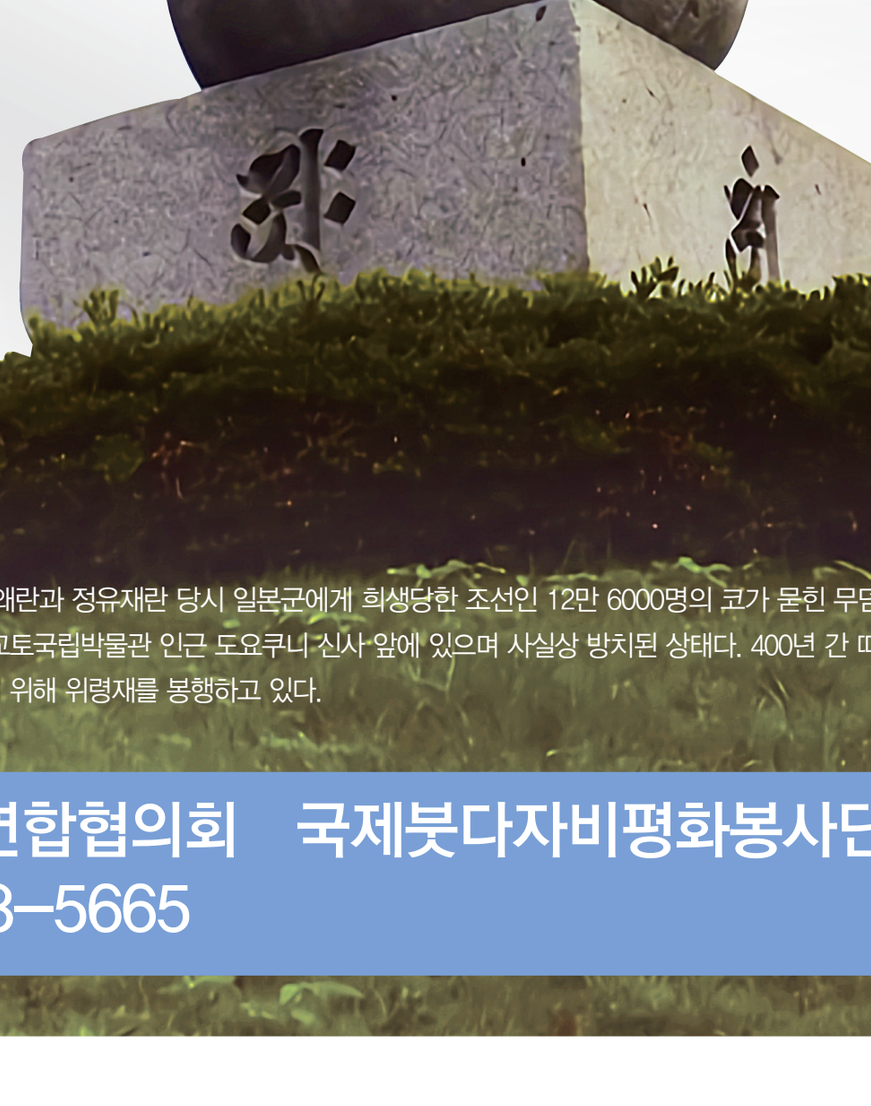
12만 조선인 '限' 서린
교토 '耳塚'(귀무덤)
4월 29일 , 한국불자들이 고혼을 천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 사명으로
지구촌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같이 울고 웃은 43년
땀 흘려 봉사하는 발걸음 멈출 수 없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가
2023년 4월 29일, 선조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교토 '**이총**'(귀무덤)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 및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세계평화와 한일문화교류의 염원이 담긴
한국불자들의 대법회서는 불교전통 천도의식이 집전
300여 순례단, 300여 오사카 현지인이 참석합니다.

그늘진 곳서 봉사활동, 음성공양, 육법공양으로
활동하는 불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들의 인간방생 도반이 되어 주시길 청합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모집

전국 각 지역 지부장 및 지역봉사단원을 모십니다
국내외 남녀 자원봉사자 환영합니다
지역 불교지도자 : 종단 불문, 포교에 나선 출가자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 남성분과, 여성분과 활동 재가자



*이총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에게 희생당한 조선인 12만 6000명의 코가 묻힌 무덤이다. 교토 이총은 교토국립박물관 인근 도요쿠니 신사 앞에 있으며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400년 간 떠 도는 원혼을 달래기 위해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활동문의 02-733-5665